

LS그룹, 2차전지 소재 사업 본격화… ‘CFE’ 힘 실는다

〈탄소배출 없는 전력〉

‘LS-LLBS’ 자회사 설립 완료
2차전지 양극소재 전구체 생산
전기차 분야 등 신사업 지속 발굴

LS그룹이 2차전지 소재 사업을 본격화하며 ‘LS CFE’ 전략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LS그룹은 최근 (주)LS 자회사로 ‘LS-엘엔에프 배터리솔루션(LLBS)’을 설립했다고 1일 밝혔다.

LLBS는 2차전지 소재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신규 법인이다. 새만금 산단 5공구에서 2차전지 양극소재 전구체를 생산할 예정으로, 2026년 초부터 초도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LS는 최근 한국과 중국, 폴란드와 베트남 등에서 설립 승인을 받았다. 신설 회사가 세계 전구체 시장과 전후방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판단이다.

LS는 LLBS를 통해 ‘비전 2030’ 핵심인 ‘CFE(탄소배출이 없는 전력)와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핵심파트너’라는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이는 구자은 회장이 취임 후 성장을 위해 선언



지난 8월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2차전지 투자협약식에서 LS그룹 새만금 산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시

한 내용으로, ‘배전반(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산업 육성을 핵심으로 한다.

LS는 LLBS뿐 아니라 전력 인프라와 종합 에너지 솔루션 분야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분야 등 새로운 사업 기회를 지속 발굴하고 추진 중이다.

LS전선의 차세대 전기 자회사LS머트리얼즈가 11월 코스닥 입성을 목표로 기업공개(IPO) 공모 절차를 본격 시작한다. 2016년 LS전선아시아에 이어 LS

전선이 두 번째로 추진하는 자회사 상장이다. LS머트리얼즈는 ‘차세대 2차전지’로 불리는 울트라 커패시터(Ultra Capacitor, UC)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다. 대형 UC 제품에서 세계 1위의 점유율과 기술 경쟁력을 보유했다.

LS일렉트릭의 전기차 부품 자회사LS이모빌리티솔루션은 중국에 이어 멕시코에 두번째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북미 전기차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LS이모빌리티솔루션은 올해까지

두랑고에 연면적 3만5000㎡ 규모의 생산 공장을 구축하고, 2024년부터 EV릴레이(Relay), BDU(Battery Disconnect Unit) 등 전기차 핵심 부품 양산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비철금속소재기업 LS MnM은 지난 3월 출자사인 토리컴에 황산니켈공장을 준공하며 EV배터리 소재 사업의 첫 걸음을 디뎠다. 황산니켈은 차세대 전기차 동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다. 올해 10월에는 울산시 온산제련소 인접 9만5000

㎡ 부지를 활용하여 2차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사업, ‘EVBM온산’에 6700억원을 투자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LS MnM은 1단계 투자에 이어 2단계로 새만금에 4만톤의 컴플렉스 공장을 증설하여, 2029년에는 전기차 약 125만대 규모에 해당하는 황산니켈 6만2000톤(니켈 메탈 기준)을 생산할 예정이다.

LS엠트론은 최근 2023 국제농업박람회에서 국내 최초 상용화된 자율작업 트랙터를 선보였다. LS엠트론의 자율작업 트랙터는 별도의 조작 없이 전후진과 회전,작업기 연동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트랙터가 스스로 농사지를 수 있는 시대를 활짝 열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다. 이를 통해 작업 시간은 17% 단축되고 수확량은 8% 증가하여 작업자의 편의성과 정밀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등 자율작업 기술의 장점을 극대화했다.

친환경 에너지 기업 E1은 에너지 시장 변화에 따라 수소,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 등 신사업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지난달 31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과 사이토 다케시 에네오스 사장 (왼쪽에서 5, 6번째) 등 두 회사 경영진이 ‘경영진 회의’에서 합의한 협력 방안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왼쪽에서 1, 3, 7, 9번째) 강동수 SK이노베이션 포트폴리오부문장,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 박상규 SK엔무브 사장, 서석원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사장 등 SK이노베이션 계열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SK이노베이션-에네오스, 경영진 회의

SAF·CCUS 등 저탄소 에너지원 개발 맞손

〈지속가능 항공유·탄소포집 활용〉

‘탄소감축 실현’ 핵심과제 인식
기술 교류·프로젝트 공동 추진

SK이노베이션이 일본 최대 종합 에너지 기업 에네오스(ENEOS)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기존 정유, 화학, 윤활유 사업에서의 오랜 협력을 바탕으로, 저탄소 에너지원 개발과 이를 위한 기술 교류, 프로젝트 공동 추진 등의 미래 협력에 뜻을 모았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양사 경영진이 지난달 31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경영진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의 협력 성과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협력 의지를 다

졌다고 1일 밝혔다.

올해 행사에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탄소감축 실현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앞서 김준 부회장과 사이토 사장은 올해 5월 만나 이러한 과제들이 두 회사는 물론 양국 에너지 업계가 직면한 공통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후 양사 실무진이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경영진 회의에서는 TF의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 대응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두 회사가 합의한 협력방안에 대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

U에는 저탄소 에너지원 공동 개발, 석유제품 수급 및 설비 운영 협력을 통한 석유 사업 경쟁력 강화, 화학·윤활유 사업의 순환경제 및 탄소저감 추진과 관련한 신규 사업 개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MOU를 구체화하기 위해 두 회사는 지속가능 항공유(SAF), 탄소포집 및 활용(CCUS) 등 저탄소 에너지원 개발 분야에서 역량과 기술을 공유하며 프로젝트를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LG전자, 제네시스 신모델 ‘웹OS’ 공급

LG전자가 31일(현지시간) 미국 L A 투 캘리포니아 플라자에서 웹OS 콘텐츠 플랫폼의 GV80 탑재를 기념하고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 고객경험 제공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2024년형 제네시스 GV80과 GV80 쿠페 신모델에

는 LG전자의 차량용 웹(webOS) 콘텐츠 플랫폼이 공급된다.

웹OS는 전 세계 2억 대에 달하는 LG 스마트 TV를 구동하는 운영 체제다. LG전자는 TV에 적용하는 웹OS를 기반으로 차량 탑승객이 유튜브와 OTT 콘

텐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즐기도록 차량 환경에 맞췄다.

제네시스 GV80 신모델은 차량용 웹OS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주행 안전 규정에 따라 운전석과 보조석, 뒷좌석에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감상하는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한다.

/김서현 기자 seoh@

에코프로, 美 네바다주 리튬광산 개발 추진

리튬업체 아이오니어 MOU 체결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이 호주의 리튬업체 ‘아이오니어(Ioneer)’와 리튬 개발과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미국 네바다주 리튬 광산 개발을 추진한다.

김윤태 에코프로이노베이션 대표와 제임스 캘러웨이 아이오니어 회장은 지난달 31일 에코프로 포항캠퍼스에서 리튬 클레이에서 리튬을 추출해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는 기술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내용의 연구개발(R&D) MOU를 맺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아이오니어는 샘플과 기초적인 데이터를 에코프로이노베이션에 제공하고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기술 개발 과제들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아이오니어는 북미에 수산화리튬 전환 공장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이오니어는 미국 네바다주에 위치



지난달 31일 에코프로 포항캠퍼스에서 열린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아이오니어간 MOU 체결식에 참석한 (왼쪽부터)제임스 캘러웨이 아이오니어 회장, 김윤태 에코프로이노베이션 대표이사가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코프로

한 광산에 매장된 리튬 클레이를 에코프로이노베이션에 무상 제공하고 수산화리튬 생산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로 사업을 협력할 방침이다.

에코프로이노베이션 측은 “아이오니어가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을 기술 파트너로 선정한 것은 리튬 전환 공정에 대한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언급했다.

/허정윤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 탭 A9+’ 국내 출시

A 시리즈 최초 5G 모델 선보

삼성전자가 ‘갤럭시 탭 A9+(사진)’를 국내 출시한다.

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 탭 A9+’는 278.2mm 크기의 스크린에 최대 9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부드럽고 몰입감 있는 스크린 경험과 함께 돌비 애트모스(Dolby Atmos)의 음향 기술이 적용된 쿼드 스피커를 탑재하여 생생한 사운드를 제공한다.

‘갤럭시 탭 A9+’는 7,040mAh(정격

용량 6820mAh) 대용량 배터리를 채용했다. 스토리지는 64GB가 탑재됐으며 최대 1TB의 마이크로



SD 카드를 추가할 수 있다.

‘갤럭시 탭 A9+’은 Wi-Fi 모델과 갤럭시 탭 A 시리즈 최초로 5G 모델이 출시된다. 가격은 와이파이 모델이 36만 8500원, 5G 모델이 41만 8000원이다.

/허정윤 기자